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9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믿음의 열매도 많이 거두시기를 빕니다.
- 오늘은 교단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합니다.
- 지역별 사랑방성서모임을 이번 주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학교 학년별 여행이 5일(화)부터 7일(목)까지 있습니다.
꾸러기학교 가을여행이 5일(화)부터 6일(수)까지 있습니다.
- 세례와 입교문답 준비교육 신청은 오늘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 40 - 36 호

2023년 9월 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임상희 권사 (감사)
홍삼성 장로 · 임명숙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혼란한 사회 속에 선 우리의 역할

나라 전체가 어우선합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여러 언론과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살인과 폭력으로 사람들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호신용품이 평소 매출에 2~3배 넘게 판매되고 있으며 이런 공포에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자 살인예고글이 제시된 곳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칼부림 및 살인이 단지 예고글에서 멈춰진 게 아닌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36건이 넘습니다. 31일 중에 36건이 넘는 사건발생이니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했으며 살인 및 흉기 난동 예고 게시물을 올린 사례는 469건, 이 중 223명이 검거되었고 2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4만 명이었던 고립청년(19~34세)은 2021년 53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 혹은 가족에서 그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상당히 높으며 그 기준에 맞춰주지 못했을 때 압박감과 사회적 비난이 은둔형 외톨이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19도 큰 영향이 있음은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이런 문지마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을 때 평소에는 받지 못하는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만족감을 느낌으로 이런 범죄를 계획하고 모방합니다. 또 세상이 자신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관계맺는 법에 서툴러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 세상과 벽을 쌓고 스스로를 단절시켜 자존감에 치명상을 입은 나는 복수가 나를 보호하는 마지막 피난처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소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통해 공동체의 의무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관계가 단절된 사회와 사람들, 외로움 속에 고립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워진 사회와 사람들,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관심갖고 기도하며 참여하여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에디오피아의(스바) 여왕은 3천년전 즈음에 솔로몬 왕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4천km가 넘는 길을 찾아왔고, 그 일이 씨앗이 되어 에디오피아는 어려움 중에도 지금까지 기독교국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문이 나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그 곳이 궁금하고, 함께 참여하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나와 우리 공동체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펴 필요를 채우고 더 넓은 이웃과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주간의 말씀

“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

<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429 539 / 459

기도 :

성경 : 느헤미야 5장

제목 : **느헤미야의 개혁**

1. 내용: 빈익빈 부익부. (What)

<문단구분>

1~5 빈익빈부익부

6~13 느헤미야의 문제해결

14~19 총독의 봉급

2. 의미: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다. (Why)

1) 느헤미야가 동포들의 원망에 응답하다.[5~7]

2) 유다 공동체가 혼란을 해결하다.[10~11]

3) 느헤미야는 녹봉을 받지 않았고 동포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15]

3. 적용: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살자. (How)

1) 부의 재분배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자.[10~11]

2) 공동체를 위한 결정에 마음 모으자.[12]

3)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혜를 구하자.[19]

성서일기

진용이의 일기

아빠가 자전거를 타고 하나로마트에 가자고 했다. 나는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탔다.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어서 다행이었다. 아빠가 잘 탄다고 하셨다. 가면서 개가 짖어서 놀랐다. 그렇게 더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 도착했다. 마트에서 껌과 설레임을 샀다. 집에 가서 먹을거다. 아빠도 하나 사서 나눠 먹었다. 집에 가면서부터 오르막이어서 힘들었다. 방금 짚었던 개가 있는데 병아리와 닭 사이인 닭을 봤다. 계속 가다가 오르막이 있어서 엄청 힘들었다. 더 가다가 오르막이 있어서 그냥 자전거를 끌고 갔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다.

3월 20일, "자전거"

오늘 내 숙제로 볼링장에 갔다. 팀은 아빠와 나, 그리고 엄마와 민용이었다. 나는 6파운드 공을 쓰다가 7파운드 공을 썼다. 아빠가 볼링을 가르쳐 주셨다. 엄마가 엄청 잘하셨다. 민용이가 목이 말라서 파워에이드를 마셨다. 더 해보니 나도 잘했다. 그런데, 오른쪽 허리가 아팠다. 아빠 말로는 힘을 주니 근육이 놀라서 그런 거라고 하셨다. 볼링을 다 하고 작은 홈플러스에서 나는 참깨라면, 민용이는 너구리를 샀다. 집에 왔더니 허리가 나아졌다. 그리고 컵라면을 먹었다.

8월 22일, "볼링장"

어린이사랑방 최진용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마태복음 11 : 28-30

29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시편 65 : 3

419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정태일 목사

히브리서 12 : 4-13

411

그루터기사랑방

설교자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357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이레 상성아/ 봉헌위원 : 천경희/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기도문

저희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자녀들로서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징계'입니다. 짧은 본문에서 8회 이상(번역본에 따라)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절은 5절의 후반부입니다. "내 아들이야,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또 징계를 받을 때에는 오해하여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유익하게 하시는 훈련이다. 히브리서는 초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이 일로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강조해야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의미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징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훈련'이라고도 번역합니다. <11> 즉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잘못에 대한 벌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열매는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주님의 징계가 아니라 주님의 훈련입니다.

정의로운 평화를 열매로 거두십시오. 믿음 안에서, 잘못된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러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출하여 관계가 잘못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 잡으려면 말씀을 수용하고 간직하는 마음이 되십시오. <눅8:15> 그리고 어렵지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12:2-3>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홍정길 장로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 학기 첫 나들이는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었습니다. 1층에 들어가 보니 커다란 물고기들부터 손톱만한 물고기들까지 많은 종류에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면서 물고기도 보고, 민물고기에 대한 설명도 듣고, 좋아하는 물고기 앞에서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물고기들 식사시간이 되서 꾸러기들이 철갑상어 앞에서 일자로 앉아 물고기 먹방도 열심히 봤습니다. 2층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것 들이 있었습니다. 홀로그램, 민물고기 도서, 민물고기 게임, 민물고기 탁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있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다들 너무 재밌게 해서 순식간에 간식 먹을 시간이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식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어떤 물고기가 좋았냐고 물었는데 가장 좋았던 물고기는 철갑상어가 뽑혔습니다.

이번 공동체놀이는 수건돌리기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놀이여서 규칙을 배우고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놀이가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끝나고 아쉬워서 내일 또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끝나고 1번밖에 못한 친구들이 속상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짜증내지 않아서 다음 날 아침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한 어린이가 울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우는지에 대해 먼저 주변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았고, 또 당사자들을 불러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각자가 다르게 기억하며 설명하였고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배움과 가르침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스스로 설명하며 해결방법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애와 소외의 문제이기에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지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며 특별한 관계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함께 더 많은 훈련을 하자고 결심 해 봅니다. 특별한 학교에 별난 교육현장입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모두가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던 지리산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예고되어 있던 만큼, 다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박예나 선생님까지 함께 해서 그런지, 두툼한 가방과 등산 스틱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든든합니다. 그래도 아직 지리산을 경험해보지 못한 1학년들의 얼굴에는 긴장의 빛이 역력해서, 선배들이 여러가지 말로 겁을 주거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새벽 일찍 출발한 지리산 여행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져 등산객 전원 하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온 몸과 신발이 흠뻑 젖은 상태로 내려온 멋쟁이는 그 날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일찍 돌아온 관계로, 그 다음 날에는 마침 화창한 날씨여서 옷을 빨고 젖은 물품을 정리하며 말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함께 외출하여, 아쉬움을 달래듯이 영화관에 가서 재밌는 영화를 보고, 볼링도 신나게 치고, 지리산 모듬별로 저녁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피드백 시간도 빼놓을 수 없지요. 누군가에게는 첫 지리산 여행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여행이기도 하는 복잡한 심경들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곧 본격적인 학교 생활의 시작입니다. 멋쟁이 학생회를 새로 뽑는 총회부터, 새로운 출발들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캄보디아 선교 찬양 여행

8월 21일-26일까지 박목사님과 함께 목사합창단의 일원으로서 캄보디아로 선교 찬양 여행을 다녀왔다. 출발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려고 했으나 사모 중창단 지휘자이기도 하고 모처럼의 해외여행이라 설레고 있는 남편의 마음도 있어서 함께 가게 되었다.

이번 여행은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합창단원들의 참여율이 낮았지만, 불교국가의 군 장성들이 모인 수방사에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감사한 것은 수방사 고위 장교 두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서 하위 장교들도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연무대교회도 있다고 한다) 소프라노 독창을 하고 현지 한인교회에서 찬양을 하였다. 그곳에는 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한데 프놈펜엔 외국인학교가 많이 있었고 한국 선교사들도 역시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선교에 힘쓰고 있었다. 코로나로 귀국한 분들도 많았고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도 제목 하나 더 추가!

크메르제국이 무너지고 프랑스 식민시대를 거쳐 그 무서운 크메르루주 통치하에 킬링필드를 겪고 잠시 베트남 치하에 공산국가였다가 현재는 민주공화국이다. 훈센총리에 의해 현재까지 장기 독재를 겪으며 빈익빈 부익부가 정말 심한 나라, 서민들은 한 달 수입이 20만 원 정도인데 프놈펜엔 고급 주택가와 외제차가 즐비한 나라. 크메르왕국의 유물인 '앙코르 왓'을 짊어지고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이다.

가로수로 하얀 꽃이 피는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킬링필드 시대에 시신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라오스의 국화인 향기가 강한 '독참파'라는 나무를 심었다는데 지금은 멋진 가로수가 되었다. 우리나라처럼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고 나라의 경제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순박하고 무엇보다 공기가 맑아서 햇볕은 따갑지만, 눈이 맑고 바쁜 일정에도 피곤하지 않았다.

무척 더워서 건강도 걱정이 되었고,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지만 가족과 친지들의 찬조로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과 참여 인원은 적었지만 정말 좋은 찬양을 할 수 있게 여러 여건들을 예비해 주셨고 땀땀한 일정임에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음에,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근자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404, 401, 292, 314

성 경 : 마태복음 22장 34-40절

말 씬 : 가장 큰 계명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동북아시아의 평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과의 불화와 대만과 중국의 전쟁 소문 등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정세가 안정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가 장로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쇠퇴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힘을 합하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멋쟁이학교 여행>
멋쟁이학교 지리산 여행 귀환을 무사히 잘 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작은 사고로 아프신 지체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이번년도 고추농사는 병충해를 입지 않아 잘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고추를 따야하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신이 나고 찬양이 절로 납니다. 가을 김장을 준비하며 빨리 배추와 무를 심어야할 때입니다. 지리산에 갔던 멋쟁이들이 호우로 인해 학교로 돌아오면서 바쁜 일정에 공동생활 식구들이 식사며 차량지원이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공동생활 식구들 중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더욱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입니다. 아픈 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노력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통해 위탁과 헌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 장영미 전도사 >